

光日春秋

이우영



봉사를 위해서 이국땅에 갔던 무고한 시민 23명이 텔레반에 납치 된지도 열흘이 넘어 가족들은 물론 온 국민들이 걱정에 휩싸여 있다. 이미 두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잡혀있는 인질들의 고통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이들을 안전하게 귀국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서 잘 보이지만 납치나 인질 그리고 이를 포함한 테러의 확대가 한국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시대통령의 장담(?)과는 달리 세상이 점점 안전하지 않게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인질사건의 뿌리

사실 그 동안 납치나 인질 그리고 이를 포함한 테러는 우리와 상관없는 말들이었다. 그렇지만, 이번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이라크, 나이지리아 그리고 소말리아 등 여러 지역에서 한국 사람들도 납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애꿎게 테러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당장 우리 국민들을 억류하고 있는 텔레반의 경우, 미국의 침공으로 권력을 상실하고 테러 집단화되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부시정권 때문에 생겨난 집단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단순히 부시정권이나 미국이 아니라 근대 이후의 제국주의적 침략이라는 차원으로

우리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었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특히 부시정권의 일방적 패권주의가 테러 증대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테러와의 전쟁' 이후 세계 도처에서 테러관련 사건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당장 우리 국민들을 억류하고 있는 텔레반의 경우, 미국의 침공으로 권력을 상실하고 테러 집단화되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부시정권 때문에 생겨난 집단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단순히 부시정권이나 미국이 아니라 근대 이후의 제국주의적 침략이라는 차원으로

시각을 넓혀 본다면, 텔레반 존재의 원인은 소련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현재 가장 불안정한 나라의 하나인 이라크도 그러하고, 해산(혹은 근벌)이 창궐하는 소말리아, 학살의 현상인 수단, 다르푸르, 만성적인 분쟁지역인 레바논과 팔레스타인도 근대 이후 제국주의 국가들의 부분별한 침략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정치경제적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군대를, 때로는 종교와 사상을 앞세워 남의 나라

를 지배하였던 국가들이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를 지지하려던 미국의 대소 정책의 산물이었다면 무자해이니나 텔레반에 대한 미국이나 소련의 태도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세계적 분쟁지역이라고 한다면 마치 해당국가나 국민들의 문제로만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마치 '잔인무도한', '반인권적'인 테러 집단과 이들의 문화(국민성과 종교성을 포함하여)가 원인이고 본질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분열과 상호 적대감 확

산은 전적으로 제국주의 지배정책의 산물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식민지 경험 이후들로 나뉘어 '피튀기게' 싸우고 있는 우리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 식민지 경험으로 여전히 아픈 우리 국민이 또 다른 역사의 피해지역에서 겪는 고통은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구 못지않게 제국주의의 아픈 역사를 아직도 겪고 있는 우리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레바논과 같은 국가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명분이야 어떻든 간에 현지사람들은 우리를 가해국가의 군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납치사건의 본질을 따져보는 것이 텔레반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인질의 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비판하고, 가능하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들의 행위와 존재 자체에 책임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좀 과하게 말한다면 텔레반이 살인범이라면 이들은 고사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들에게는 입을 닫고 있는 것일까?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방 주택시장 침체 바라만 볼건가

광주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해제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에 여윌차리 뺄질식 처방에 불과했다. 죽어가는 지방 주택경기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발표된 6월29일부터 7월31일까지 아파트와 분양권 가격은 해제 전보다 오히려 하락했고 미분양도 증가했다. 아파트값은 이번엔 해제된 광주, 부산, 대구광역시 등 시·군·구 24개 지역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곳이 하락했다. 분양권 역시 4곳이 하락하고 12곳은 보합세였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시기가 너무 늦은 데다 겨우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정도의 효과 밖에 없어 처음부터 그 실효성에 회의적이었다. 더욱이 다

음달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비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아파트도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2개월짜리 뺄질식 처방에 불과했다. 죽어가는 지방 주택경기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도 문제지만 기존 집이 안 팔려 잔금을 못내는 사태가 심각하다. 따라서 지방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수요자들이 채고 주택 처분과 신규 분양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대출 규제를 풀고, 양도세를 완화해 기존 주택 거래의 습동을 띄워 줘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대출 규제를 지방과 수도권을 나눠 차등 적용해야 한다.

광주·전남 다문화 시대 대비할 때다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2만7천여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0.8%를 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주민은 2만7천96명으로 전체 인구의 0.8%에 달했다. 이는 광주·전남지역 사회가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역사회에 외국인 주민이 크게 증가한 것은 국제 결혼 이주자가 급증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이 날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가 5천384명으로 전국의 12.2%를 차지해 국제결혼이 보편화하고 있는 추세다.

지역사회가 다(多)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지역민의 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2만9천660쌍이 결혼했고, 3천924쌍이 이혼했다. 2003년에 비해 결혼은 43% 늘었는데 이혼은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제결혼가정의 파탄 급증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 순혈주의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집착 등이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제대로 좇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부족도 한 원인이다. 외국인 주민 지원 기구는 광주·전남지역에 24곳에 달하지만 80%가 민간기구여서 예산과 전문성이 부족, 체계적인 지원이나 교육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는 2010년에는 농어촌 초등학교의 4분의 1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역사회가 이들이 건강하게 자리 잡도록 나서지 않으면 사회구조의 한 부분이 흔들릴 수 있다.

無等鼓

바야흐로 바캬스의 계절이다. 20세기 초 까지도 여가를 즐기는 것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조차 사치에 속했다. 프랑스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바캬스를 즐기 시작한 것은 7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36년 6월 당시 사회당 정부가 발의한 전 근로자의 유급휴가 실시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부터 바캬스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바캬스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연 2주간이었던 유급휴가가 55년 3주간으로 늘어나고 65년엔 4주간, 82년엔 5주간으로 늘었다.

바캬스 개념이 우리나라에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 지 30년을 넘어섰으나 아직 선진국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국내 주요기업체가 최근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휴가 설문조사 결과 가족(72.6%)과 함께 2박 3일(45.3%) 동안 바다(48.9%)를 찾아 콘도(30.3%)나 펜션(30.2%)에 묵을 계획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온 가족이 인과가 북적이는 바닷가를 찾아 2박 3일간 준비한 음식을 직접 해 먹는 게 우

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준형 여름 휴가'인 셈이다. 국제수지 측면에서 보면 여름휴가 시즌은 우월한 계절이다. 지난해 7월과 8월 2개월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쓴 돈은 23억6천600만달러에 달한다. 원화로 환산하면 2조2천억원에 달한다. 원화로 환산하면 2조2천억원에 달한다.

바캬스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연 2주간이었던 유급휴가가 55년 3주간으로 늘어나고 65년엔 4주간, 82년엔 5주간으로 늘었다.

바캬스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연 2주간이었던 유급휴가가 55년 3주간으로 늘어나고 65년엔 4주간, 82년엔 5주간으로 늘었다.

바캬스 경제학



바캬스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연 2주간이었던 유급휴가가 55년 3주간으로 늘어나고 65년엔 4주간, 82년엔 5주간으로 늘었다.

바캬스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연 2주간이었던 유급휴가가 55년 3주간으로 늘어나고 65년엔 4주간, 82년엔 5주간으로 늘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독자마당

출산 장려한다면서 가족단위 초대권 왜 4인 기준인가

정부를 비롯, 자치단체까지 출산을 장려하는 여러대안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그런데 놀이 동산이나 음악회, 미술관, 과학관 등에서 나눠주는 가족단위 초대권의 경우 대부분 4인기준이다.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하지만 부부와 함께 아이가 둘일때만 가능하다. 굳이 4인가족을 중시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아이가 어릴 때는 물어간다는식으로 지났는데 유치원을 다니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초대권을 받을 때의 기쁨은 잠시뿐이고 모자라는 한장의 표를 구매해서 가야 하나 아니면 말아야 하나 갈등하게 된다.

가족간의 대화 시간 늘려 청소년 가출 막자

얼마 전 여자청소년이 집을 나와 노숙을 하다가 다른 노숙자들에게 의해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등 청소년들의 가출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없으며 먼저 자녀의 가출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출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와의 정기적인 대화시간을 갖는 것으로 올바른 대화는 가족 간의 친밀도를 강화시켜 주는데 자녀에게 고민이 생겼을 때는 함께 걱정하고 이해하며 일방적인 명령보다는 설득을 하는 등 부모 자녀 간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모 자신들이 효과적인 대화 기법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유명 식당서 쓰다 남은 물수건 행주로 사용해서야

얼마 전 아이들과 시내 한 갈비집을 찾았다. 유명한 식당이니만큼 손님들이 많이 몰려 북적거렸는데 실내에서 움직이는 아줌마들의 손질도 아주 바빠 보였다.

가 아니라 먼저 나간 손님들이 쓰고 바꾼 물수건이었다. 식당에서 사용하는 물수건은 회수해 재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의 조기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방학을 이용해 한국에서 미국을 찾는 아이들도 많다. 그런데 같은 한국인인데도 이 곳,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과 한국에서 건너온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자녀가 젊음마를 하다가 넘어지면 아직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을 때는 얼른 일어서 주어야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을 때부터는 울더라도 그냥 놔두어야 한다. 안스럽다고 금방 달려가 일으켜 주는 것은 결국 아이의 능력 개발을 막아 버리는 '교육'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자녀들에 신문 배달 시키는 나라

전력을 다해 생존과 안전을 지켜주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 품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입으로 쏘면서 오히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한다. 험난한 바깥세상에서 잘 적응하여 생존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 기위한 '교육'이지 미워서가 아니다.

다 '독자'다. 자기만 온갖 특권을 독차지 하는 것으로 길러져 왔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에 적응력을 갖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각목을 휘두르는 사람까지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

남성분 함유 어린이용 금속 액세서리 대책 시급

자녀들에게 선물로 목걸이나 팔찌 같은 어린이용 금속 액세서리를 자주 사준다. 아이들도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이런저런 액세서리를 사서 걸치고 다닌다.

허용 기준치(600mg/kg)의 평균 124배에 달했다고 한다. 특히 목걸이와 팔찌는 미국의 납 성분 기준치를 117~347배나 초과했는데, 이들 제품이 대부분 중국산이었고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것도 많았다고 한다.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는 어린이용 액세서리의 수입·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光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대표전화 2200-500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대외)FAX	222-4918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체육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시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